

住居環境이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

— 中學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cholastic Attainment

— A Case of Middle School Students —

신 경 주*
Shin, Kyung Joo
노 선 덕**
No, Sun Du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cholastic attain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mental facultie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37 middle school students and SAS Package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cholastic attainment was significantly good when the number of family was four and it improved as the level of parents' occupation, parents' school career and household income got higher.
 2. As the distance to the facilities from the house got nearer, the level of arrangement in the house got higher, the degree of concern of parents on the education got higher and the scale of the house got larger, the scholastic attain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ecome better significantly.
 3.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d an independent effect on the scholastic attain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

I. 緒 論

* 한양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경기도 의왕중학교 교사

住居環境은 住宅을 中心으로 한 環境으로서 人

間은 그 속에서 人間의 基本生活인 衣生活, 食生活, 住生活を 비롯하여 敎育, 宗敎, 私交 등의 心理的인 生活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住居環境은 物理的 環境과 더불어 心理的, 生理的 環境의 意味를 가졌으며, 人間 行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環境 要素이다.

住居環境은 可視的인 面에서의 便利性이나 快適性 外에 기회의 제공,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人間의 知的·情意的 行動에 영향을 미치므로, 人間에게 바람직한 住居環境이 제공된다면 人間의 잠재적인 可能性의 발현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겠다.

靑少年期는 知的·情意的 行動의 기반이 形成되는 時期로 오늘날 이 時期의 靑少年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여 社會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時期에 있는 中學生에게 보다 바람직한 住居環境을 제공하여 이들의 學業成績과 人性 特性을 向上시킬 수 있다면 이는 큰 성과가 될 것이다.

住居環境이 人間의 人性 特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경희(1981), 노영남(1985), 배수경(1987) 등의 몇편의 研究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住居環境이 人間의 學業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研究는, 住居環境을 家庭環境의 한 部分으로 다룬 정도의 研究가 있을 뿐(김재중 1981, 김대석 1983, 심한식 1984등) 住居環境 自體에 초점을 맞춘 研究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本 研究는 오늘날 社會가치관의 변화에 따

라 급증하고 있는 靑少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住居環境 측면에서 찾고자, 靑少年의 代表로 中學生을 선정하여 이들의 學業成績과 住居環境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먼저 中學生의 學業成績 向上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家庭環境 및 住居環境 要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中學生의 住居環境을 보면 그 學生의 學業成績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밝혀서, 이를 기반으로 靑少年에게 보다 나은 住居環境을 제공하여 주어 이들이 學業에 열중하게 유도하므로써, 건전한 靑少年 양성에 그 功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設定한다.

〈研究問題 1〉: 中學生의 學業成績은 家庭環境(人的 環境, 地位環境)에 따라 差異를 나타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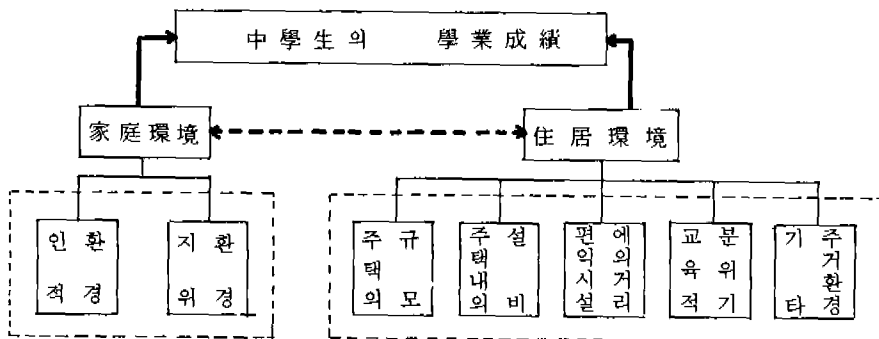
〈研究問題 2〉: 中學生의 學業成績은 住居環境에 따라 差異를 나타내는가?

〈研究問題 3〉: 中學生의 學業成績은 住居環境에 의해 독립적인 영향을 받는가?

本 研究를 위하여 設定한 研究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本 研究에 使用된 用語는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① 住居環境

本 研究에서의 住居環境은 관련 研究를 근거로 하여, 學業成績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1〉 연구모형

주택의 규모(주택의 건평, 주택 내 방의 수 등 3개 항목), 주택 내의 설비(목욕탕 시설, 변소 시설 등 7개 항목), 教育的 분위기(父母의 교육 헌신도, 학습 자료 제공 등 7개 항목), 편의시설에의 거리(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 5개 항목), 기타 주거환경(거주 지역, 거주 기간 등 5개 항목)에 한정한다.

② 學業成績

學業成績은 學習에 의해 이루어진 全教科에 대한 지식·기능을 측정하여야겠으나 本 研究에서는 研究의 目的상 學校간 지역간에 同一한 척도를 얻기 위해, 全國的인 규모로(K사 발간) 1989년 6월 말에 실시된 모의고사(체육교과 제외됨)의 結果를 利用한다.

③ 人的環境

本 研究에서의 人的環境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사대상 학생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 구성, 가족수, 性別, 출생 순위에 한정한다.

④ 地位環境

地位環境은 일반적으로 S.T.P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本 研究에서도 이에 준하여,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父母의 직업, 父母의 학력, 가정의 수입에 한정한다.

II.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1. 住居環境의 범위

일반적으로 住居環境은 住宅을 中心으로 한 物理的, 心理的, 生理的 環境을 의미한다고 말하여지고 있으나 접근方法에 따라 意味에 다소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住居環境의 意味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 관련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住居環境 구성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원(1980)의 주거환경지표를 기준으로 그 외 相关 연구에서의 주거환경의 범위를 살펴 보았다(표 1 참조).

그 結果, 大部分의 研究에서 건물 구조물, 지구

의 평가, 거주 상태를 구성하는 要素가 채택되고 주택 설비나 편의시설을 구성하는 要素가 제외된 경우가 다수 보였다. 또 研究의 目的에 따라서 경제적 속성이나 과거 이동을, 住生活에 대한 감정 등을 임의 첨가하고 있으며 同一한 研究 目的인 경우에도 합의점 없이 相異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택 내의 설비, 주택의 규모, 편의 시설, 거주상태를 선정하는 한편,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住居 內的 교육적 분위기를 포함시켜 주거환경지표로 使用한다.

앞으로 住居環境에 相关된 研究가 보다 객관화되고 체계화되려면 먼저 주거환경의 정의가 확립되어야겠으며 이를 통하여 보편 타당성 있는 주거환경지표가 設定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住居環境과 相关된 선행 연구

① 住居環境과 學業成績

住居環境과 學業成績의 관계 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大部分의 相关 연구는 住居環境 중의 一部 要因을 家庭環境에 포함시켜 그 相互關係를 고찰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박경숙·김정환·김지순(1981), 김병성(1985), 김재훈(1987), 조홍구(1987)는 교육격차와 相关된 要因에 대한 研究에서, 居住 지역에 따라 學力이 유의적인 差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Sylvia O. R.(1982)는 학습지진아에게 可能하면 個室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김진호(1985)도 정상아의 住居상황이 지진아의 住居에 비하여 주변의 소음 정도가 낮고 공부방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양영선(1977), 김재중(1981), 심한식(1984)은 家庭의 거주지 환경과 文化시설이 좋으면 學力이 向上된다고 하였고 이대석(1983)은 家庭의 物理的요인과 學業成績이 유의적인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함성익(1984)은 居住地의 생태적 환경, 집의 크

(표 1)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환경지표의 검토

연구주제	주거수준조사					주거만족도							인성특성과의 관계		계 N (%)		
	국토개발원 (1980)	건설부	송인성 (1985)	이훈 (1985)	박인숙 (1986)	김경연 (1984)	김미희 (1985)	김유일 (1988)	최옥화 (1988)	최정혜 (1984)	주영애 이길표 (1987)	김정호 (1987)	김미희 (1983)	김영희 (1985)		노영남 (1985)	
주거환경지표																	
건축물	○	○	○	○	○	○	○	○	○	○	○	○	○	○	○	○	13 (87)
구조물																	
주택비	○	○	○	○	○			○		○	○		○			○	8 (53)
입식	○				○						○		○			○	8 (53)
시설																	
지가	○										○	○	○		○	○	13 (87)
가평																	
상태	○	○	○		○										○	○	14 (93)
기타			경제적 수준	평균가구소득 가구당 평균 임대료	만족 주택가격에 대한		주거비			경제성	가구규모, 경제요인 가출생애 주기,	과거 이동률 경제인구학적 변인,		주생활에 대한 감정 주거생활 시간,			

기, 내부 文化시설, 경제적 지위, 父母의 학력을 지위변인으로 놓았을 때 學力과의 상관관계가 0.48이라고 하여 그 비중이 큼을 시사하였다.

그 외에도 한충효(1984), 서인석(1987)은 가정의 학습환경에 대한 研究를 통하여 가정의 교육환경이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研究는 住居環境의 하부 요인인 居住지역, 住居밀도, 文化시설, 가정의 학습환경 등이 학업성적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住居環境과 人性 特性

김경희(1981)는 고층주택 거주자들은 가족 결속감의 결여, 心理的 不安, 고립감을 많이 느끼며, 兒童의 경우는 정서성과 社會性이 낮다고 하였다.

金暎希(1985)는 전용주거 아동이 병용주거 아동보다 지배성, 사려성이 높다고 하였고 金振鎬(1985)는 家庭의 文化道具(物質的 道具)와 活動性,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社會性과의 관계를 研究하여 文化道具를 많이 갖출수록 人性 特性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노영남과 배옥희(1985)는 男女 高校生은 1인당 住居면적이 좁을 때, 居住 지역의 소음이 많을 때, 임차가일때 住環境에 대한 感情이 나빠지며 이는 明朗性, 情緒安定, 가족관계,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재한(1984)은 住居형태와 사려성, 社會性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중희(1986)는 집 근처 친구수, 주거 소유 형태가 兒童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배수경(1987)은 住宅의 소유 형태에 따라 사려성과 안정성에 유의적인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研究를 종합하면 住居環境이 成長期에 있는 兒童과 靑少年의 人性 特性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研究는 住居環境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住居環境 要因 중의 一部를 部分的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종합된 상태에서의 住居環境이 學業成績이나 人性 特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종합적인 住居環境이 中學生의 學業成績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研究 方法 및 절차

본 연구는 設問紙法에 의하였으며, 設問紙는 주거환경지표와 관련된 資料(주거수준조사연구 1980, 주택조사·人口 및 住宅 센서스 調査 1985 등) 및 관련 論文(곽인숙 1986, 김정호 1987, 노영남 1985 등)을 근거로 본 研究目的에 준하여 임의 작성하여 使用하였다.

設問 內容은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과 주거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이를 다시 가정환경은 인적환경(4문항) 및 지위환경(5문항)으로 나누고, 주거환경은 주택의 규모(3문항), 주택 내의 설비(7문항), 편의시설에의 거리(19문항), 교육적 분위기(7문항), 기타 주거환경(5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기준 척도가 되는 학업성적은 조사대상 중학생이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設問紙는 結果 처리의 정량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문항이 점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¹⁾

본조사는 1989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다양한 주거환경의 학생을 추출하기 위하여 서울의 2개 지역(강남구·서초구 지역과 강동구 지역), 시지역(수원시), 군·읍·면지역(반월읍)에서 同一한 시험을 치른 6개 中學校를 선정하여, 층화무작위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하였다.

표본의 수집은 지역별로 각각 160부 내외씩, 도합 635부를 배부하여 이 중 580부(91%)가 회수되

1) 주택 내 설비는 3단계, 부모의 학력, 가정의 수입, 주택의 규모, 주거 내 교육적 분위기, 편의시설에의 거리는 5단계로 구분하였다. 점수화 시는 가장 낮은 수준을 1점, 가장 높은 수준을 각각 3점, 5점으로 부여하였다(예외로 편의시설에의 거리는 가장 낮은 수준을 5점으로 하여 1점수로 도표화 되었음). 문화용품수는 예시된 15품목 중 가정에서의 실제 소유수를, 학업성적은 전국 모의고사 성적을 그대로 기입케 하였다.

있으며 기입상의 누락 등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537부(85%)를 결과처리하였다.

結果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분산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및 T-Test, F-Test, Durbin-Watson D, SNK Test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IV. 調查 結果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人的환경에 있어서, 본 조사대상자의 性別은 男(51.8%)·女(48.2%)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가족 구성은 핵가족(84.7%)이 많다. 출생 순위는 長男(27.6%)과 長女(24.3%)가 전체의 반 정도이고 가족수는 4명(31.8%)과 5명(36.9%)으로 구성된 가족이 主를 이룬다.

地位환경에 있어서, 父의 직업은 서비스직·관리직·전문직(70.6%)이, 母의 직업은 주부(66.5%)가 많고, 父母의 학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父 71.0%, 母 59.2%로 우리나라 평균교육연수에 비하여 고학력이 많다. 가정의 수입은 1989년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74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극히 저소득인 계층(25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고른 분포를 보인다.

住居환경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32.5%)가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80% 정도가 1년 이상 現在의 住宅에 거주하고 있어 現 주거환경에 정착하여 安定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은 의도적인 배분으로 인해 서울의 강남구·서초구 지역(19.9%), 강동구 지역(29.1%), 시 지역(33.7%), 군·읍·면 지역(17.3%)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택의 입지는 단독 주택지(40.9%)나 아파트단지(34.4%) 등의 주거지역이 전체의 75% 정도이고,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40.0%, 집합주택이 46.5%이며,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주택이 73.1%이다. 본 표본은 주거지역, 집합주택

및 자가 주택 거주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조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중류 또는 중류 이상 가정의 거주자가 主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2. 研究問題의 해석

1) 中學生의 家庭環境과 學業성적(研究問題 1)

學業성적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가정환경 변인을 人的환경(性別, 가족 구성, 출생 순위, 가족수), 地位환경(父·母의 직업, 父·母의 학력, 가정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변인과 學業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分析은 분산분석에 의하고, 집단 간의 差異는 SNK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① 人的環境의 경우

住宅 내의 人的환경을 구성하는 조사대상자의 性別, 가족 구성, 출생 순위, 가족수의 4가지 변인과 學業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표 3>).

性別에 있어서는, $P < .05$ 수준에서 남자의 평균 점수와 여자의 평균 점수 사이에 유의적인 差가 인정되지 않고,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핵가족 환경의 경우와 대가족 환경의 경우 사이에 유의적인 差異가 없고, 출생 순위 역시 그 差異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수에 따른 환경에서는 가족수 3명 이하일 때와 7명 이상일 때보다 6명, 5명, 4명일 때 점점 성적 높아져, 가족수 4명인 경우의 學業성적이 가장 높고 그보다 가족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學業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P < .001$).

따라서 人的환경과 學業성적과의 관계는 性別, 가족 구성, 출생 순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가족수에서만 그 유의차가 인정되어 가족수가 4명일 때 가장 學業성적이 높다.

② 地位環境의 경우

가정의 地位환경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수입의 5가지 변인과 學業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표 4>).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변 인	f (%)	구 분	변 인	f (%)	
성 별	남	278 (51.8)	가 족 성 격	핵가족	455 (84.7)	
	여	259 (48.2)		대가족	82 (15.3)	
	계	537 (100.0)		계	537 (100.0)	
출 생 순 위	장남	148 (27.6)	가 수	25 만원 미만	23 (4.4)	
	장남 이외의 아들	116 (21.6)		25~50 만원 미만	103 (19.5)	
	장녀	130 (24.3)	정 입 의	50~75 만원 미만	148 (28.0)	
	장녀 이외의 딸	118 (22.0)		75~100 만원 미만	118 (22.3)	
	외동	24 (4.5)		100 만원 이상	136 (25.8)	
계	536 (100.0)	계	528 (100.0)			
가 족 수	3명 이하	32 (6.0)	거 기 주 간	1년 미만	112 (20.9)	
	4명	171 (31.8)		1~3년 미만	145 (27.1)	
	5명	198 (36.9)		3~5년 미만	105 (19.6)	
	6명	78 (14.5)		5년 이상	174 (32.5)	
	7명 이상	58 (10.8)		계	536 (100.0)	
	계	537 (100.0)	거 지 주 역	서울 서초구·강남구	107 (19.9)	
직 업	아 버 지	무직		29 (5.5)	서울로 그 외 지역	156 (29.1)
		농업·어업·임업		56 (10.6)	서울을 제외한 시 지역	181 (33.7)
		기능직·생산직		70 (13.3)	군·읍·면 지역	93 (17.3)
		서비스직·관리직·전문직		373 (70.6)	계	537 (100.0)
	계	528 (100.0)	주 입 택 지 의	공장지역	5 (0.9)	
어 머 니	농업·어업·임업	17 (3.2)		상가지역	40 (7.5)	
	기능직·생산직	63 (11.8)		단독주택	219 (40.9)	
	서비스직·관리직·전문직	99 (18.5)		아파트단지	184 (34.4)	
	주부	356 (66.5)		녹지지역	87 (16.3)	
계	535 (100.0)	계	535 (100.0)			
학 력	아 버 지	무학·국졸	47 (8.8)	주 유 택 형 의	단독주택	215 (40.0)
		중졸	108 (20.2)		연립주택	63 (11.7)
		고졸	170 (31.8)		아파트	187 (34.8)
		전문대졸·대중퇴	30 (5.6)		기타	72 (13.4)
	대졸 이상	180 (33.6)	계		537 (100.0)	
계	535 (100.0)	주 형 택 소 태 유	월세	23 (4.3)		
어 머 니	무학·국졸		94 (17.6)	부분 전세	58 (10.8)	
	중졸		124 (23.2)	독채 전세	59 (11.0)	
	고졸		222 (41.6)	관사	4 (0.7)	
	전문대졸·대중퇴		12 (2.2)	자가주택	391 (73.1)	
	대졸 이상		82 (15.4)	계	535 (100.0)	
계	534 (100.0)					

*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시켜 사례수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N : 528~537)

〈표 3〉 인적환경과 학업성적

구 분		평균	사례수	구분	자유도	평균자승	F	다중비교 검증결과
성 별	남 (1)	125.2	278	집단간	1	2465.204	3.12	1=2
	여 (2)	120.9	259	집단내	535	790.039		
				전 체	536			
가족 구성	핵 가족 (1)	123.7	455	집단간	1	847.024	1.07	1=2
	대가족 (2)	120.2	82	집단내	535	793.064		
				전 체	536			
형제 순위	장남 (1)	126.9	148	집단간	4	1154.926	1.46	1=2=3 =4=5
	그외의 아들 (2)	122.2	116	집단내	531	791.931		
	장녀 (3)	122.4	130	전 체	535			
	그외의 딸 (4)	119.3	118					
	외동 (5)	128.2	24					
가족 수	3명 이하 (1)	109.1	32	집단간	4	8794.479	12.00 ^{***}	1=5<4 ≤3<2
	4명 (2)	133.0	171	집단내	532	733.004		
	5명 (3)	123.4	198	전 체	536			
	6명 (4)	115.3	78					
	7명 이상 (5)	111.8	58					

* P<.05 ** P<.01 *** P<.001

〈표 4〉 지위환경과 학업성적

구 분		평균	사례수	구분	자유도	평균자승	F	다중비교 검증결과
직	아버지						17.58 ^{***}	2=3=1<4
	무직 (1)	117.3	29	집단간	3	12848.949		
	농업·어업·임업 (2)	105.5	56	집단내	524	730.808		
	기능직·생산직 (3)	111.6	70	전 체	527			
	판매직·관리직·전문직 (4)	128.5	373					
업	어머니						10.48 ^{***}	2<1<3<4
	농업·어업·임업 (1)	110.8	17	집단간	4	7912.946		
	기능직·생산직 (2)	108.0	63	집단내	530	755.079		
	판매직·관리직·전문직 (3)	120.4	99	전 체	534			
	주부 (4)	127.3	356					
학	아버지						46.75 ^{***}	1=2<3 <4=5
	무학·국졸 (1)	100.9	47	집단간	4	27595.544		
	중졸 (2)	107.3	108	집단내	530	590.336		
	고졸 (3)	119.2	170	전 체	534			
	전문대졸·대중퇴 대졸이상 (4)	133.7	30					
	대졸이상 (5)	140.4	180					
력	어머니						35.19 ^{***}	1=2<3
	무학·국졸 (1)	105.0	94	집단간	4	22295.563		
	중졸 (2)	112.8	124	집단내	529	633.511		

	고졸 (3)	128.1	222	전 체	533			< 4=5
	전문대졸·대중퇴 (4)	140.5	12					
	대졸이상 (5)	144.0	82					
가 정 의 수 입	25 만원 미만 (1)	105.3	23	집단간	4	14314.920	20.72	***
	25 ~ 50 만원 미만 (2)	108.4	103	집단내	523	690.864		I=2<3
	50 ~ 75 만원 미만 (3)	119.5	148	전 체	527			< 4=5
	75~100 만원 미만 (4)	130.0	118					
	100 만원 이상 (5)	135.3	136					

* P<.05 ** P<.01 *** P<.001

직업에 있어,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이나 농업·어업·임업, 기능직·생산직일 때보다 판매직·관리직·전문직일 때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대체로 기능직·생산직, 농업·어업·임업, 판매직·관리직·전문직, 주부의 順으로 학업성적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무학·국졸, 중졸일 때보다 전문대졸·대중퇴나 대졸 이상일 때 더 높은 학업성적을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 또한 무학·국졸, 중졸일 때보다 전문대졸·대중퇴나 대졸 이상일 때 더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낸다.

가정의 수입은 25만원 미만이나 25~50만원 미만일 때보다 75~10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일 때 학업성적이 더 높다.

따라서 父母의 직업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대체로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父母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유의적으로 높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정의 地位환경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研究 結果는 선행된 많은 研究(김재중 1981, 심한식 1984, 김진영, 1987, 심학번 1987, 김왕근, 1988, In-Sub Song & John Hattie 1984, John B.F. & Dorothy Creal 1980,

Kevin Marjoribanks, 1987 등)의 結果와도 일치한다.

2) 中學生의 住居環境과 學業成績(研究問題 2)

住居환경이 中學生의 學業成績에 미치는 影響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住居환경을 구성하는 변인의 수는 매우 많으므로 이들을 特性이 비슷한 변인 끼리 묶기 위하여 要因分析을 하였다. 主要인분석법(Principle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직각회전(Varimax) 시켜서 1인 부하치가 .4 이상인 변인을 모은 結果, 편의 시설에의 거리를 나타내는 19문항, 주택 내의 설비에 관련된 7문항, 주거 내의 교육적 분위기에 관한 7문항, 주택의 규모에 관련된 3문항이 서로 묶여져서 4개의 要因이 추출되었다. 이들 요인을 각각의 特性에 따라 편의시설에의 거리, 주택 내의 설비, 교육적 분위기, 주택의 규모로 명명한다(표 5).

분산에 대한 설명량은, 편의시설에의 거리 요인이 전체 분산의 42.52%를, 주택 내의 설비 요인이 18.97%를, 교육적 분위기 요인이 16.53%를, 주택의 규모 요인이 12.78%를 설명하여 4개 요인이 분산의 90.79%를 설명한다.

요인분석된 주거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표 6).

(표 5) 주거환경 요인 추출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표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번호	요인부하치		번호	요인부하치		번호	요인부하치		번호	요인부하치	
		주요인분석법	최우추정법		주요인분석법	최우추정법		주요인분석법	최우추정법		주요인분석법	최우추정법
	개인병원	0.73007	0.73049	복합단지시설	0.79641	0.84177	학습부진원인 점검	0.65115	0.68174	주택의 건평	0.86826	0.96362
	은행	0.68805	0.69949	빈소 시설	0.66371	0.71189	교육 현신도	0.62537	0.62564	부근주택의 건평	0.71662	0.72288
	학원	0.66927	0.67932	부여 시설	0.61311	0.65344	학습 흥미도 점검	0.61235	0.59540	주택내 방의 수	0.67388	0.68026
	대형수퍼마켓	0.65774	0.63017	문화용품수	0.59373	0.57746	성적 점검	0.59762	0.59178			
	목욕탕	0.64204	0.62882	난방 방법	0.52990	0.53627	학습자료 제공	0.57934	0.53055			
	백화점	0.63449	0.61892	학습 공간	0.49014	0.40383	간식 제공	0.55108	0.52435			
	동사무소	0.62398	0.60454	취침 공간	0.46886	0.37910	상별	0.48152	0.49204			
	시장	0.59950	0.59433									
	고등학교	0.59846	0.59178									
	공공도서관	0.59834	0.58217									
	종합병원	0.58596	0.57901									
	이발소·미용실	0.57011	0.57768									
	버스정류장	0.56173	0.57134									
	중학교	0.53439	0.56512									
	운동장	0.53213	0.51243									
	어린이놀이터	0.52875	0.51075									
	노인정	0.52792	0.50092									
	공원	0.50249	0.49158									
	산책로	0.48341	0.47258									
설명된 분산		7.136673	6.963966		3.183135	3.126240		2.773349	2.720685		2.144048	2.286903
명칭	편의시설에의 거리	주택내의 설비			교육적 분위기			주택외 규모				

〈표 6〉 주거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	표준오차	t
편의시설에의 거리	-8.406351	1.20273495	-6.989***
주택 내의 설비	10.648002	1.25791888	8.465***
교육적 분위기	8.334691	1.28713305	6.475***
주택의 규모	3.783700	1.16404000	3.25**
절편	123.707748	1.13835031	108.673***
R ² =0.3072			
F=47.777***			

* P<.05 ** P<.01 *** P<.001

Durbin · Watson D 1.858

사례수 436

1st Order Autocorrelation 0.071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hat{Y} = 123.71 - 8.41X_1 + 10.65X_2 + 8.33X_3 + 3.78X_4$$

\hat{Y} : 학업성적, X_1 : 편의시설에의 거리

X_2 : 주택내의 설비, X_3 : 교육적 분위기

X_4 : 주택의 규모

따라서 주거환경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편의시설에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택 내의 설비 수준이 向上될수록, 교육적 분위기가 높을수록, 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업성적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P<.01).

이 때의 R² 값은 0.3072로서 주거환경이 학업성적의 30.72%를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P<.001).

3) 住居環境이 中學生의 學業成績에 미치는 영향의 독립성 여부(研究問題 3)

住居環境이 다른 환경변인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中學生의 學業成績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에 使用한 주거환경 변인 외에 가정의 地位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변인(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수입), 주거환경을 요인분석할 때 제외되었던 거주 기간, 거주 지역 변인까지를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켜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다.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7634), 어머니의 학력과 거주 지역(-.5761), 아버지의 학력과 거주 지역(-.5477) 등 관련 독립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다수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이 同時에 회귀분석에 도입될 경우 多共線性的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투입할 변인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인을 회귀분석에 투입시켜 본 결과, P<.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수입 변인은 학업성적의 예측 요인으로는 作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地位환경 변인(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수입) 끼리의 상관관계가 높은 관계로, 그 중 학업성적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아버지의 학력 변인만이 그 特性을 대표하여 유의적인 회귀계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수입 변인을 제외하고 2차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표 7〉에 투입된 변인들은 P<.15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들 변인을 투입시켜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다(표 8).

Stepwise Regression의 結果, 家庭의 地位환경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학력 변인 외에 투입된 주거환경 관련 변인(거주 지역, 교육적 분위기, 편의시설에의 거리, 주택 내의 설비, 주택의 규모, 거주 기간)이 모두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채택된다(P<.15 수준). 따라서 住居環境은 中學生의 學業成績에 독립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 변인이 中學生의 學業성적을 예언하는 변량(R²값)은 27.46%이며 주거환경 변인

〈표 7〉 중학생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F	P > F
거주 기간	1.64953186	1.00133283	2.71	0.1002
거주 지역	-4.51475363	1.51163060	8.92	0.0030
아버지의 학력	5.16298236	1.07444111	23.09	0.0001
편의시설에의 거리	-4.54955496	1.35298638	11.31	0.0008
주택 내의 설비	5.33654247	1.53661067	12.06	0.0006
교육적 분위기	6.00541669	1.27629501	22.14	0.0001
주택의 규모	2.02424747	1.13740477	3.17	0.0758
절편	112.68011643	6.59151702	292.23	0.0001

$R^2=0.3793$

$F=37.36^{***}$

〈표 8〉 주거환경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한 Stepwise Regression

	순번	R ² 증가	R ²	C(P)	F
아버지의 학력	1	0.2746	0.2746	66.8682	164.3112
거주 지역	2	0.0492	0.3239	34.9984	31.5391
교육적 분위기	3	0.0250	0.3489	19.8068	16.5847
편의시설에의 거리	4	0.0083	0.3571	16.1328	5.5311
주택 내의 설비	5	0.0128	0.3700	9.3010	8.7646
주택의 규모	6	0.0054	0.3754	7.5807	3.7153
거주 기간	7	0.0039	0.3793	6.8741	2.7137

$P < .15$ 수준에서 모든 변인이 유의적임.

(거주 지역, 교육적 분위기, 편의시설에의 거리, 주택 내의 설비, 주택의 규모, 거주 기간)이 추가 되면 예언 변량은 37.93%로 높아진다.

VI. 結論 및 제언

本研究는 住居環境이 中學生의 학업성적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이와 병행하여 中學生의 學業成績의 向上을 위한 住居環境의 改善 方向을 밝히기 위하여, 家庭環境과 中學生의 학업성적의 관계, 住居環境이 中學生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住居環境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독립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조사는 設問紙法에 의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結果 처리의 정량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문항이 점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는 1989년 7월 1일~7월 15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同一한 시험을 치른 6개교를 선정하여 635부의 설문지를 배부, 이 중 537부를 최종 결과 처리하였다.

자료는 SAS Package를 利用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本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家庭環境중 조사대상자의 性別, 가족 구성, 출생 순위에 따른 학업성적의 差異는 인정되지 않으나, 가족수, 父·母의 직업, 父·母의 학력, 가정의 수입에 따라 학업성적에 유의적인 差異가 나타난다. 가족수는 4명일 때 학업성적이 가장 높고, 父·母의 직업, 父·母의 학력, 가정의 수입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유의적으로 높다($P < .05$).

2. 住居環境은 中學生의 학업성적의 30.72%를

說明하며($P < .001$), 편의시설에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택의 설비 수준이 向上될수록, 교육적 분위기가 높을수록, 住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업 성적은 向上된다($P < .01$).

3. 家庭의 地位환경을 나타내는 변인과 住居환경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中學生의 학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 住居환경 변인은 中學生의 학업성적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채택된다($P < .15$). 이 때, 아버지의 학력 변인이 中學生의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변량은 27.46%이고 住居환경 변인이 추가되면 예언변량은 37.93%로 높아진다.

본 研究 結果, 住居환경은 中學生의 학업성적의 상당 부분을 說明하며 그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住居환경의 改善은 中學生의 학업성적을 向上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보다 나은 教育환경으로서의 住居환경 造成은, 편의시설을 용이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住居지역에 가깝게 배치하고, 住宅 內部를 生活에 便利하고 快適하게 만들며, 父母가 住宅 內의 教育的 분위기 形成을 위하여 노력하며, 住宅의 규모를 가능한 한 늘려주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의 研究에서는, 住居環境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모든 住居環境 변인이 研究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학업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을 다각도로 측정할 것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건설부 주택과, 주택조사(주택조사를 위한 기준 설정).
2. 박인숙, 生活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986, pp. 161-182.

3. 국토개발연구원, 주거수준조사연구, 1980.
4.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센서스, 1985.
5. 김경연, 兒童의 住居満足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pp. 75-87.
6. 김경희, 住宅환경이 兒童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영향, 주택 40, 대한주택공사, 1981, pp. 59-64.
7. 金美希, 住居移動 志向性에 관한 研究(서울시를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3), 1983, pp. 103-114.
8. 김병성, 학교 교육과 교육 격차(교육사회학적 접근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85.
9. 김영희, 주거환경이 아동의 人性 발달에 미치는 영향(병용주거와 전용주거와의 비교),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5.
10. 김왕근,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11. 金裕逸, 住居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수도권 아파트 가구를 中心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1988.
12. 金宰中, 사회계층 배경이 학업성적에 주는 영향,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13. 김재훈, 학업성취 격차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87.
14. 金政鎬, 都市家口の 居住移動과 政策的 示唆(서울시를 事例로), 주택 48, 대한주택공사, 1987, pp. 4-19.
15. 金濟漢, 가정환경변인과 子女의 지능 및 人性과의 관계,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4.
16. 金重姬, 주거환경과 아동의 교우관계, 계명대 석사논문, 1986.
17. 김진영, 社會계층 배경에 따른 주거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18. 김진호, 환경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 및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金玉학술문화재단 논문집 4(초등교육편), 1985, pp. 395-414.

19. 盧英男, 高校生の 明朗性과 情緒安定에 영향을 미치는 住居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985, pp. 187-199.
- 20) _____, 裴玉姬, 住居환경이 高校生の 社會性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3(4), 1985, pp. 109-121.
21. 朴慶淑, 金正煥, 金知順, 새 교육체제 적용학교의 학업성취도 決定要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OR-81, 1981.
22. 배수경, 住居환경에 따른 아동의 人性 특성에 관한 연구(단독주택과 아파트를 中心으로), 부산동아대 석사논문, 1987.
23. 백운칠, 주거수준 및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각국 사례를 中心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7.
24. 송인성, 주거환경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택 46, 대한주택공사, 1985, pp. 31-45.
25. 심한식, 가정의 지위환경과 작용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1984.
26. 양영선,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구조적 변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77.
27. 이대석, 가정환경의 物理的, 心理的 제요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분석, 전남대 석사논문, 1983.
28. 이훈, 住居환경의 체계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5.
29. 조홍구, 교육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경기도 초·중·고등학교를 中心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1987.
30. 주영애, 이길표, 住居에 관한 가치관 연구(서울 시내 아파트 거주 주부를 中心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987, pp. 69-84.
31. 최복화, 현대 도시 주거의 質 예측을 위한 개념적 모형에 관한 연구(서울과 대전 지역을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2), 1988, pp. 49-67.
32. 崔貞惠, 中都市 主부들의 住居환경에 대한 관심도 및 만족도 연구(馬山市를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pp. 81-89.
33. 한충효, 가정의 환경적 과정 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서울대 박사논문, 1984.
34. 威成億, 가정환경의 과정구조 地位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35. In-Sub Song & John Hattie,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aus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6(6), 1984, pp. 1269-1281.
36. John B.F. & Dorothy Creal, Family Socio-economic and Educational-Emotional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3(6), 1980, pp. 311-317.
37. Kevin Marjoribanks, Ability and Attitude Correlates of Academic Achievement; Family-Group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9(2), 1987, pp. 171-178.
38. Sylvia O.R. & Robert Smith, Learning Disabilities, Family Practice, Seconded., W.B. Saunders Company, 1982.